

한 박자 천천히

김미지*

글 잘 쓰는 비결?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 교실 조교.

“저는 정말 글을 잘 쓰고 싶은데요, 비결이 있을까요?”

학생들과 상담을 할 때 많이 듣게 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다. 글을 잘 쓰고 싶은 생각은 굴뚝같은데 마음대로 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쩌서 내가 생각한 비는 내 손을 통해 조리 있게 펼쳐지지 않으며, 내가 느낀 것은 종이 위에 그럴 듯하게 표현되지 않는가. 논리적이며 자연스러운 글을 쓰는 기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많은 학생들은 목말라하고 있다. 적어도 글쓰기 교실의 문을 두드리는 상당수의 학생들은 진정으로 글을 잘 쓰고 싶어 한다. 단지 높은 학점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라는 뜻이다.

그러면 상담자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야 ‘글쓰기를 잘 하는데 특별한 비결이나 왕도란 없다’ 식의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테지만 그건 하나마나한 이야기이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을 파악해서 조언을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을 던진 당사자로서는 얼마나 맥이 빠질 일이겠는가. 학생마다 목말라하는 지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조언도 그때그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문장과 문장 사이 혹은 단락과 단락 사이의 논리적 연결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실질적으로 논리적 기술(skill)을

훈련할 수 있는 책을 소개해준다든지, 문장에 오류가 많은 학생에게는 올바른 문장 쓰기를 위한 지침들을 제시해준다든지 하는 식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질문을 받으면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되묻기도 한다 “글을 잘 쓰기 위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숨어 있는 속뜻을 말하자면 이렇다 혹시 당신은 글을 잘 쓰는 능력을 거저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글쓰기의 비책만 습득하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글을 잘 쓸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

짧은 호흡, 빠른 마무리

글쓰기 상담자로서 학생들의 글이나 리포트를 접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대체로 비슷하다 주제가 모호하거나, 논리에 조리가 없거나, 문장에 실수가 잦거나, 그 어떤 경우든 간에 대체로 글의 호흡이 빠르고 글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이 급하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성급하게 또는 신중하지 못하게 씌어진 글일수록 실수나 오류가 많고 전체적으로 불명확한 글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성급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글쓰기 과정 전체와 관련이 있다 충분히 주제와 구성을 고려하지 않고 써내려가니 그 시작이 성급할 것이요, 생각을 풀어나가는 호흡이 짧으니 글 쓰는 손놀림도 빠를 것이다 그러니 글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마무리하기까지의 시간도 짧을 것이 분명하다 메시지를 짧은 시간에 후딱 해치워버려야 직성이 풀리듯, 글쓰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셈이다 일단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하고,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나서는 다시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시작에서 끝까지 그야말로 일사천리에 속전속결이다

학생들의 글쓰기가 흔히 빠르고 짧은 호흡으로 치닫는 원인을 컴퓨터 작업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견해가 많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타당한 진단일 것이다 컴퓨터에서라면 얼마든지 쉽게 수정도 할 수 있고, 복사

하기·잘라내기·붙이기가 자유자재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단 쓰기 시작한 뒤에, 가다가 안 되면 지워버리고, 어색하면 들어내고 옮겨 붙이고 하는 수고가 컴퓨터 덕에 너무나 자유로워졌다 어떤 때는 머리보다 손가락이 더 빠른 속도로 앞서 달려 나가기도 한다 또한 학생들이 과제 해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은 손쉽고 신속한 글쓰기를 부추기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컴퓨터로 글을 쓰는 것이 글쓰기 습관을 망친다'고 하여 키보드나 인터넷을 배척할 것이 아닌 이상, 더 이상 컴퓨터 탓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미 글쓰기 행위로부터 컴퓨터를 떼어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글쓰기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란 어떤 것일까? 그 답은 뻔하면서도 간단하다 성급하지 않게, 조금만 천천히 가기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고치기

여기서 '천천히 간다'는 말은 우선 글쓰기 과정에 좀더 여유를 두고 호흡을 늦춘다는 것을 뜻한다 주제를 고민하고 알개를 짜는 일부터, 문장을 만들고 어휘를 고르는 일까지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한 번만 더 읽어봐도 글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먼저 문장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많은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긴 문장(주로 겹문장)을 구사하거나 명사구를 남발하는 경우이다 문장이 길게 늘어지다 보면 호흡을 놓치기 쉽고, 그렇게 되면 곧잘 문장의 호흡 구조가 망가지게 된다 문장을 쓸 때 될 수 있는 한 짧게 쓰는 훈련을 하라고 권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습관적으로 문장을 길게 늘어 썼다 하더라도 그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다면 다시 끊어내고 잘라낼 수 있는 요령도 터득해야 한다 자신이 쓴 긴 문장을 짧게 고쳐 쓰지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사고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명사구는 전형적인 번역 투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 번만 다시 생각하고 풀어쓰면 훨씬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기술을 통한 시스템 간의 직접적인 교류에 대한 필요”와 같은 문장을 “정보기술을 이용해 시스템 간에 직접적으로 교류하도록 할 필요”와 같이 고치는 것이 과연 어려운 일일까 문제는 그렇게 한 번 더 읽어보고 고치려는 노력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퇴(推 밀다)자를 쓸 것이냐 고(敲 두드려다)자를 쓸 것이냐를 두고 밤을 새워 고민하지는 않더라도 더 나은 문장, 더 나은 어휘를 고르기 위해 고심하는 것은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것은 주제나 일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알맹이를 잡아 이야기를 풀어갈 것인가 내가 이 글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곳은 어떤 부분인가 주제를 잡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충분히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의 일개는 또 어떠한가 글에는 정해진 알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쓰고자 하는 글에 잘 맞는, 즉 자신의 이야기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적절한 짜임을 스스로 고안해야 한다 첫 문장과 도입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본문은 어떤 순서로 배치할 것인지, 결론에는 어떤 요소를 넣을 것인지 하는 것이 모두 까다롭게 고민되어야 하는 일이다

글을 쓸 때도 한 박자 천천히

어느 커피 광고의 카피에 인생을 ‘한 박자 천천히’ 가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글쓰기에도 해당될 법한 말이다 글을 쓰기 전 한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곱씹어보기, 글을 써놓고 다시 마음을 가라앉혀 찬찬히 뜯어 들여가기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글을 쓰고 나서 자기의 글을 다시 곱곰 되돌아보는 것은 귀찮고 피로운 일로 여겨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글의 실수나 오류들이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 뻔하다 그

러나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한 박자 쉬었다 갈 필요가 있다 며칠 묵혀두었다가 다시 읽어보는 것도 좋고, 써놓은 글을 소리 내서 읽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낭독을 하면 눈으로만 읽어서는 잘 잡히지 않는 글의 실수나 어색함이 확연히 드러나곤 한다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것은 그 과정 자체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또 그래야 하는 일이다

글쓰기 습관을 좀더 멀리 내다본다면, ‘천천히 간다’는 말은 평소에 좋은 글을 많이 읽고, 많이 써보고, 많이 생각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 혹시 자신은 게으름과 불성실을 탓하기보다는 재주를 탓하고 있지는 않은지, 글재주가 없다는, 혹은 글 솜씨가 있다는 핑계로 글쓰기 훈련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물어볼 일이다 정약용은 「변학문(勲學文)」에서 글재주가 좋은 것도 공부하는 자에겐 병통이라고 했다 글 짓는 재주가 좋으면 허황한 데 흐르는 폐단이 생기기 때문이란다 재주가 있든 없든 결국 중요한 것은 근면함이라는 말을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니 나는 글재주가 없으니까 혹은 글재주가 있으니까 더더욱 성실하게 차근차근 잘 갖고 닦아야 하지 않겠는가 